

AUTHOR 유태주

TITLE 칼빈의 참교회와 거짓교회 비교론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IN 신학과 사회

vol.9 (1995): 105-126

칼빈의 참교회와 거짓교회 비교론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유 태 주
(조직신학, 조교수)

〈目 次〉

시작하는 말

- I.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와의 비교론
 1.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2. 세례와 성만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고 있는가?
 - (1) 세례
 - (2) 성만찬
- II.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 구별의 의미
 1.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선포한다고 볼 수 있는가?
 2. 종교다원주의 신학으로도 성례의 참뜻을 바르게 인식하며 시행할 수 있는가?

맺는 말

시작하는 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2장에서 거짓교회와 참된 교회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의 목적은 사도들의 교훈에 바로 서은 교회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로마 카톨릭교회를 비교함으로써 로마교회가 거짓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로부터 거절된 것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고 튼튼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칼빈의 교회론이 21세기를 바라보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한국교회와 신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진실된 교회의 적으로 보고 투쟁하였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거짓교회의 사상은 바로 혼합주의 내지 종교다원주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거짓교회와 참된 교회의 비교논리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하고 거짓교회 사상을 추방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와의 비교론을 살펴본 후에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칼빈의 논리를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I.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와의 비교론

칼빈은 참교회의 지표로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는데 있다고 하였다.¹⁾

1.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거짓교회는 그 높은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드러난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는, 고대 유대인이나 로마 카톨릭이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로마 카톨릭교도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굉장히 자랑했으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교회들은 교회 대신에 외양을 자랑하지만 그런것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²⁾ 따라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논박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인용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전이라 여호와와의 전이라 여호와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4) 주께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양심적으로 준수되는 곳이 아니면 어떤 성전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³⁾ 또한 바울의 지적과 같이(롬 11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복음

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C. R.), vol.2, ed., J. T. McNeill, F. L. Battles,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Book IV, Chapter i, 9; ii, 1.

2) I. C. R., IV, ii, 3.

3) Ibid.

의 교훈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외형에 필요한 것을 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진리의 적으로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⁵⁾ 이와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이면서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위협한다. 비록 그들이 성전과 사제직과 그 밖의 외적인 것을 내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않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결코 없다.⁶⁾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 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 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치신 영원한 표적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요 18 : 37).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요 10 : 14).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 : 27).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 : 4-5)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표로서 교회를 표시하셨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찾느라고 미친 사람처럼 멧대로 행동하는가? 표가 보이는

4) Ibid.

5) Ibid.

6) I. C. R., IV, ii, 4.

곳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있으며, 표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에 있다. 바울은 우리를 환기시킨다. (엡 2 : 20)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의 음모집단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요 8 : 47)⁷⁾

이렇게 칼빈이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성경말씀을 제일 순위로 내세우게된 근거는 그의 성서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칼빈의 성서관을 간단하게 재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칼빈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리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까지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가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⁸⁾

칼빈은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the credibility)을 먼저 :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에서 찾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신탁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하시기를 원하셨다.(참

7) Ibid.

8) Ibid.

9) I. C. R., I, vi, 1.

조, 요5:39)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친히 듣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¹⁰⁾

그리고 성경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다.¹¹⁾ 그런데도 “어떤 선한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지껄여대도 그들을 반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고민한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이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굳게하기 위한 “인(seal)”이요 “보증(guarantee)”이라는 사실(고후 1:22)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¹²⁾ 고 칼빈은 경고한다. 그리고 성경은 자체의 보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에도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칼빈은 진술한다.¹³⁾

칼빈은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 글들을(유명한 웅변가나 철학자들의 글) 그만 읽고 성경읽는데 몰두해 보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깊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것이 골수까지 스며들어 그 깊은 감동과 비교할 때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미덕들을 훨씬 능가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쉽사리

10) Ibid.

11) I. C. R., I, vii, 4.

12) Ibid.

13) I. C. R., I, vii, 5; 성경의 자중에 관해서 참고할만한 논문은...ed., Harvie M. Conn, *Inerrancy and Hermeneutic*, Baker, 1988, pp. 47-46, ; Sinclair B. Ferguson, *How Does the Bible Look at Itself?* I, viii, 1-3.

알 수 있을 것이다.”¹⁴⁾

칼빈은 성경의 모든 이적들을 신뢰하면서 성경말씀의 교훈의 확증으로 삼으며¹⁵⁾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확인한다.¹⁶⁾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극히 잔인한 폭군의 야만적 행동으로부터, 마치 사나운 불길로부터 이를 구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내서 이를 보전하였다.”¹⁷⁾ 나아가 칼빈은 신약성경의 단순성과 천상적 성격이, 아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면서¹⁸⁾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을 경고한다.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존경을 자기네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 버리는 비판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혀보자. 그러면 원하는 원치않은 저들은 적어도 자기네들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1000구절이나 되는 성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 구절들은 그들의 조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무시무시한 소인을 찍을 것이다.”¹⁹⁾

끝으로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회역사 속에서 교회의 변함없는 승인과 성경교리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순교한 사실로 증

14) I. C. R., I, viii, 1.

15) I. C. R., I, viii, 5.

16) I. C. R., I, viii, 7.

17) I. C. R., I, viii, 10.

18) I. C. R., I, viii, 11.

19) Ibid.

거를 삼는다.²⁰⁾

“성경이 처음 공포된 이후로 오랜 세대를 두고 사람들은 굳건히 그리고 조화롭게 성경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일치하였다. 아무리 사탄과 온 천하가 무수한 기이한 방법으로 성경을 압박하고 전복하거나 혹은 인간들의 기억으로부터 희미하게 하거나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시도했으나 도리어 그것은 종려나무와 같이 점점 높이 올라가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²¹⁾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 모든 학자들이나 인물들이 모두 실패하였고 그 어떠한 세력도 성경을 파괴하려는 세력은 연기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으며, 성경말씀이 이와 같이 사면에서 공격을 받았는데도 인간의 방어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는가? 아니 이것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²²⁾ 성경은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특히 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일치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왔음은 하나님의 의지임을 말해준다.²³⁾ 그리고 성경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담보를 치루고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말씀의 진리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²⁴⁾

2. 세례와 성만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고 있는가?

20) I. C. R., I, viii, 12-13.

21) I. C. R., I, viii, 12.

22) Ibid.

23) Ibid.

24) I. C. R., I, viii, 13.

칼빈은 참된 교회의 영원한 지표로 성례전 집행을 들고 있다.

“... 모든 신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신조들을 파괴하지 않는 과오, 또한 성례전에 대한 주님의 합법적인 제정을 폐지하거나 전복시키지 않는 과오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요새에 거짓이 침입해서 필수적인 교리의 요점과 성례의 효험이 파괴될 때에, 틀림없이 교회는 죽게된다. 목을 찢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²⁵⁾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하에서는 주님의 성만찬의 자리를 가장 더러운 모독행위로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 모양의 참을 수 없는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치명적인 비행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굳게 설 수 있다.²⁶⁾

왜 이처럼 칼빈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교회의 영원한 지표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인가? 칼빈의 성례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성례전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진술한다고 말한다. 성령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그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 성례전의 주제가 예수그리스도인 것이다.²⁷⁾

(1) 세례

물 자체가 “깨끗하게 하고, 중생시키며 새롭게 하는 것”이 아

25) I. C. R., IV, ii, 1.

26) I. C. R., IV, ii, 2.

27) I. C. R., IV, xiv, 16.

나라(벧전 3:21),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십자가 사건)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성화시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는다. 이때에 세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았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다.”²⁸⁾

칼빈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되고,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표시한다. 칼빈은 롬 6:3-4(“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롬 6: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를 인용한다.²⁹⁾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 가짐을 확증하고 표시한다.”³⁰⁾ 따라서 세례란 교회의 사귄에 들어간 것을 표시하는 인치심의 표지이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28) I. C. R., IV, ii, 2.

29) I. C. R., IV, xv, 2.

30) I. C. R., IV, xv, 6.

다.³¹⁾

(2) 그리스도의 성만찬

세례가 죄의 용서와 중생, 회개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³²⁾ 성만찬은 이미 주님과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이다.³³⁾ 칼빈은 성만찬을 “영적인 잔치”라고 하며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떡(요 6:51)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³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음식이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교류함으로 힘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³⁵⁾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회적으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떡과 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³⁶⁾ 칼빈은 (마 26:26-28)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를 인용한다.³⁷⁾ 칼빈은 “유일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31) I. C. R., IV, xv, 1.

32) I. C. R., IV, xv.

33) I. C. R., IV, xvii, 1.

34) Ibid.

35) Ibid.

36) Ibid.

37) I. C. R., IV, xvii, 3.

자기를 내어 주셨으며,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생 제물임을 분명히 확인한다.³⁸⁾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그를 대신할 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부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케 하였다.”(히 5:6, 10; 7:17; 9:11; 10:21; 시 110:4; 창 14:18)³⁹⁾ 따라서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하는 믿음은 사탄의 소리이며, 미사라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사제들이나 이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공로로 얻는다든지 혹은 이 미사는 화해의 희생으로서 이 희생에 의하여—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은 적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미사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유효책으로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행위라고 말하는 저들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망각하는 것이요, 그의 죽음을 회상하게 하는 성만찬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칼빈은 질책한다.⁴⁰⁾

II.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 구별의 의미

잘아는 바와같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에 밀어닥치는 신학 사상은 혼합주의이며 그 중심사상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38) I. C. R., IV, xvii, 5.

39) I. C. R., IV, xviii, 2.

40) I. C. R., IV, xviii, 1.

pluralism)이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사조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점은 성경말씀에 대한 왜곡·불신과 신중심주의 혹은 종교귀일론이라는 이름으로⁴¹⁾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한다. 따라서 칼빈의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양대 표지(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와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성경말씀 왜곡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이, 극적으로 상호배타적 입장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나마 이 두가지 주제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선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칼빈은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분별하기 위한 첫번째 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까닭임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즉 교회는

41) 로마 카톨릭의 포용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신중심주의에 접근하며, 존 히치(John Hich), 파니카(R. Panikkar), 사마르타(S. Samartha) 등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과, 해방·정치 신학(liberation/political theologies) 등의 포스트모던 신학들이 신중심주의(theocentric model)를 추구한다.; P. F. Knitter, No Other Name? Orbis, N.Y., 1985, pp. 120, 171-204. 또한 초월적인 진리를 인정치 않으려는 불교, 유교 등의 종교에 기독교 진리를 종교사상의 일종으로 보고 접근시키려는 자들 중에는, 소위 '종교귀일론'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심을 부인한다.; 심일섭, 한국토착화신학 형성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5, "오늘의 종교다원주의와 多神의 토착신앙"("예수만이 혼자 독생자인가. 하나님의 씨를 끼워 로고스의 성령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열의 씨요 독생자이다"; 유명모 말씀 pp. 179, 215-6, 223) pp. 289-290.

42) I. C. R., IV, ii, 1.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위에 기초하였고, 그 초석은 그리스도이다.(엡 2:20)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초석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⁴³⁾

그런데 칼빈이 로마교회를 겨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는⁴⁴⁾ 지적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학사상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일종의 연애하는 남녀의 사랑의 과장된 이야기거리 정도로 보기 때문이다.⁴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불신하는 근거는 성경의 기록들을 신화로 취급하기 때문이며, 그 목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부인하고자 함에 있다.

존히(John Hich)은 예수님의 성육신 및 신성에 관한 성경기록을 신화적인 것으로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이 예수가 자신들에게 주었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상징적, 신화적 모델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말씀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것이었다.”⁴⁶⁾ 따라서 존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을 신화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은 오직 예수안에서만 만나질 수

43) Ibid.

44) I. C. R., IV, ii, 4.

45) P. F. Knitter, op. cit., p. 185.

46) Knitter, Ibid., p. 150.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안에서 ‘참으로’ 만나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은 종교간의 대화의 가능성과 동시에 그 필연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⁴⁷⁾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관은 이미 볼트만(R. Bultmann)에게서 나타난바 있다. 볼트만에게 있어서, 신약성서는 신화적인 것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인은 복음의 진수를 둘러싼 신화적인 것을 벗기고 케리그마를 찾아내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비신화화라고 볼트만은 주장한다.⁴⁸⁾

그러나 볼트만의 非神話化論은

첫째, 실존주의 철학의 일파에 의존한 것으로(M. Heidegger의 실존주의)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의 성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해시킬 중심을 잃고 있다.

둘째, 비신화화는 역사에 근거한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려는 허구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초대교회와 그 신학에 대하여, 볼트만은 예수의 영향력을 無로 돌린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회상이 그의 지상생애와 복음전파간의 짧은 기간내에 실제적으로 말살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논리가 희박하다.

넷째, 볼트만이 神話라 부르는 모든 교리를 성경은 사실이라 부른다. 볼트만의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은 인간성의 부패를 간과

47) Knitter, Ibid., pp. 150-152.

48) 간하배, 현대신학 해설, 개혁주의 신학협회, 1982, pp. 50-52.

한 것이다.⁴⁹⁾

이상과 같이, 볼트만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성서관인 비신화 화론은 철학적 방법론으로, 비역사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불과한 허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지적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한 진리임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⁵⁰⁾ 성경자체가 이를 증거함과 동시에⁵¹⁾ 인간이성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된다.⁵²⁾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만 그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는 것임을 칼빈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서 있다고 본 것이다.⁵³⁾

그러나 거짓교회와 거짓 신학사상은 그 높은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않음이 드러난다.⁵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진리의 적으로서,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⁵⁵⁾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

49) Ibid., p. 55.

50) I. C. R., I, vii, 4.

51) I. C. R., I, vii, 5.

52) I. C. R., I, viii, 1-13.

53) I. C. R., I, vii, 4 ; IV, ii, 1.

54) I. C. R., IV, ii, 3.

55) I. C. R., IV, ii, 3, 참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⁵⁶⁾

56) Ibid. 참조.

2. 종교다원주의 신학으로도 성례의 참뜻을 바르게 인식하며 시행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신앙생활의 요새에 거짓이 침입해서 성례의 효험이 파괴될때, “틀림없이 교회는 죽게된다. 목을 찢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⁵⁷⁾ 고 까지 말하였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제도하에서는, 주님의 성만찬 자리를 가장 더러운 모독행위로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 모양의 참을 수 없는 미신으로 더럽혀졌다고 칼빈은 지적하였다.⁵⁸⁾ 왜, 이처럼 칼빈이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중요시하며, 성례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그가 그토록 분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한바 대로 성례전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⁵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들 통하여 믿게된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확증하게 된다. (로마서 6:3-5절 참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

57) I. C. R., IV, ii, 1.

58) I. C. R., IV, ii, 2.

59) I. C. R., IV, xiv, 16.

참고 ;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Part 1, trans., G. W. Bromiley, T. & T. Clark, 1980, § 58.

하느뇨”) ⁶⁰⁾ 또한 세례가 죄의 용서와 증생, 회개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 성만찬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임을 칼빈은 분명히 인식하였다.⁶¹⁾

칼빈은 “유일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셨으며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게 하신 것이다.”⁶²⁾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생제물임”⁶³⁾을 분명히 확인한다.

이러한 칼빈의 성례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회적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히 5:6, 10; 7:17; 9:11; 10:21; 시 110:4; 창 14:18)⁶⁴⁾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며,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하는 믿음”은 사탄의 소리이며, “미사라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 행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사제들이나 이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공로로 얻는다든지, 혹은 이 미사는 화해의 희생으로서 이 희생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60) I. C. R., IV, xv, 2.

61) I. C. R., IV, xvii, 1.

62) I. C. R., IV, xvii, 5.

63) I. C. R., IV, xviii, 6.

64) I. C. R., IV, xviii, 2.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은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다⁶⁵⁾고 질책한 칼빈의 주장이 20세기 말 포스트모던 시대(post-modern age)에 재 등장한 소위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과 이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적이라고 본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부인하기에 그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세상 이방종교의 우상 숭배에 떨어뜨리는 모독행위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를 말씀(logos)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것은,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이 예수가 자신들에게 주었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상징적, 신화적 모델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본다.⁶⁶⁾ 또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개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에 국한시키지 않는다.⁶⁷⁾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는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이미 힌두교에도 존재하며 동시에 힌두교는 참된 종교이다.”⁶⁸⁾ 또한 그리스도는 라

65) I. C. R., IV, xviii, 1.

칼빈의 기독교강요 요약 (칼빈이 직접 쓴 요약), 이형기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4, p. 430.

66) Paul. F. Knitter, *No Other Name?*, Orbis, N. Y. 1985, p. 150.

67) R. H. Drummond, *Toward a New Age in Christian Theology*, Orbis Books, N. Y., 1985, p. 142.

68) Drummond, *Ibid.*, p. 88.

마(Rama),⁶⁹⁾ 크리슈나(Krishna), 이스바라(Isvara), 푸루샤(Purusha), 타타가타(Tathagata) 등의 많은 역사적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⁷⁰⁾ 하나님의 독생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역사와 민족과 시·공을 초월하여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⁷¹⁾ 세속 종교의 인위적인 잡신들과 동일시하는 모독을 범하고 있다.⁷²⁾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범신론적이며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신화시키거나, 단순하게 인간화시키면서 성찬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칼빈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미사행위를 적그리스도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으며(딤후 2:5-6), 주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전에 참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종교의 잡신들과 동격화 내지 보편화시킴으로 성례의 기초를 흔드는 자들을 거짓교회의 무리라고 성경말씀과 칼빈의 논리를 따라 분명히 선언한다.

69)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 나오는 라마야나의 영웅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문학과 음악, 미술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묘사됨.;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ed., Mircea Eliade, Macmillan, N. Y., 1987, vol. 12, p. 208.

70) Knitter, *op. cit.*, p. 156.

71) ed., John Burnaby, *Augustine: Later Works*, Westminster Press, pp. 17-181, "The Trinity."

72) 참고; G. W. Braswell, Jr.,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 권혁봉역, 세계종교의 이해, 요단출판사, 1991, pp. 44-45.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칼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두가지 기준을 두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때 로마 카톨릭교회는 거짓되고 사악한 집단이라고 칼빈은 질책하였다.

그런데 21세기를 바라보는 포스트모던 시대인 오늘의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통교회는 물론 개신교회 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쯤먹고 파괴하는 사상이 스며들어 왔으니 소위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말씀의 정확성을 부인한다. 성경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자체를 신화 내지 이야기라고 취급해 버린다. 그들이 성경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내용을 시중의 이야기거리로 몰아부치는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위함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이슬람의 코란과 불교의 법화경, 힌두교의 베다경과 유교의 사서삼경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 인물로 끌어내리고, 힌두교의 잡신들과 세속 종교지도자들을 같은 대열에 합류시킴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러한 현상이 이른바 포스트모던 사조와 함께, 교회안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깊숙히 스며들어 기독교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거짓이 참을 대신하려하고 있음에도, 일부 신학자들과 일부 교회지도자들은 이를 옹호 내지 전

파하고 있는 것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파와 승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상이나 세력을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칼빈의 논리를 따라 종교다원주의의 허구성을 간단하게나마 진술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안에서 들려주시고 기록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신빙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선포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야 한다. 곧 오직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건이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며 성찬을 통하여 성령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됨을 칼빈은 말한다.

따라서 칼빈이 말한 참교회의 지표인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거짓이 숨을 장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칼빈의 참교회의 지표는,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처한 교회에도 적용되어 종교다원주의라는 파도를 물리치고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유감없이 감당하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